

양수기·이양기 모판·비닐하우스 지주대까지

# 영농철 무차별 절도 판친다

## 일 나간 틈 타 빈집털이도 기승

농번기를 맞아 농촌지역에 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농민들이 논밭에 나가 있는 사이 빈집을 터는 가 하면 논에 설치해 놓은 양수기가 없어지고, 모판이 사라지는가 하면 하우스의 철골 지주대까지 도난당하고 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유홍비 마편을 위해 밭에 있는 양수기를 훔친 상근 예비역 김모(22·목포시)씨 등 2명을 붙잡아 군부대에 이첩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0분께 해남군 문모(67)씨의 밭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시가 16만여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초에도 해남군 삼산면 등지의 논·밭에 있던 양수기 2~3대가 사라지는 등 양수기 절도범이 활개치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지난달 10일 김모(59)씨가 강진읍 목리 농로변에 쌓아둔 70여 판의 모판 중 20여판을 도둑맞았다. 또 다른 김모(55·강진읍 남포리)씨도 3개의 논에서 80여 판을

도난당하는 등 지난 6월 한달간 강진군 목리와 남포리, 학평리 일대 20여 농가들이 가구당 20~30여개의 모판을 잃어버렸다.

농촌 빈집털이도 극성이다.

지난달 5일 낮 12시께 강진을 송전리 김모(여·65)씨와 같은 마을 김모(여·58)씨, 이모(75)씨 등 마을주민 3명의 집에 도둑이 들어 70여만원의 훔쳐 달아났다. 같은달 26일 오후 4시께에는 도암면 황촌리 김모(62)씨 집에 도둑이 침입해 농약값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특히 최근 고철 값 상승 등으로 철근을 훔쳐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진읍에 사는 조모(59)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5시께 자신의 논둑에 논과 논 사이를 오가는 다리로 쓰기 위해 설치해 놓았던 길이 3m정도의 철관을 분실했다. 장모(65·강진읍)씨도 지난달 5일 하우스에 도둑이 들어 보관 중이던 시가 20여만원 상당의 하우스 지주대 40여개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4일에는 성전면에 사는 김모(64)씨의 창고에 있던 자전거 2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경찰관계자는 “문 단속과 농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도난 사건 발생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화순에 전국 최초 산지약용식물단지

화순에 전국 최초의 산지 약용식물단지가 조성된다.

화순군은 지난달 26일 산림청 주관 ‘산지약용식물단지 조성사업’에서 전국 최고상을 수상해 12억 2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화순군은 이 예산으로 북면 백야산 등 3개소에 산지약용식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지약용식물단지가 조성되면 화순군은 화순을 내평리 생물산단단지내 우수 한약 유통사업비 12억여원 확보 백야산 등 3곳에 조성



“강진 무농약 하지감자 나왔어요”

강진군 성전면에서 제철을 맞은 하지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이 감자는 지난 3월초 6만6천㎡에 파종돼 무농약으로 재배됐으며 80t수확량 모두가 학교급식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강진군 제공>

## 업무는 1주일에 이틀만?

### 고용지원센터 강진출장소

#### 월·목요일만 개소 불만 폭증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강진출장소가 일주일에 이틀만 문을 열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서 일자리를 찾거나 실업 급여 등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도 강진출장소는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만 문을 열고 예약제로 실업 급여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민원인들이 출장

소에 왔다가 문이 잠겨 헛걸음을 하는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진출장소는 2001년 개소 당시에는 직원 4~5명이 상주했으나 최근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1주일에 두 번만 문을 열고 있다.

김모(56·완도군)씨는 “고용 관련 민원 상담을 위해 아침 일찍 출장소를 찾았는데 1주일에 이틀만 업무를 본다 안내문이 붙어 있어 황당했다”면서 “강진, 완도, 해

남지역 민원인들이 목포 고용센터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하고도 문을 닫는 시간이 많아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목포고용센터 관계자는 “강진출장소의 업무량이 적어 상주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출장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민선 4기 2년 결산

김 일 태 영암군수

### “기업유치·대형 국책사업 순항중”

영암군은 민선 4기 2년동안 농·축산과 관광, 기업유치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농산물 수입에 대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인증면적(6천500ha)을 획득했다. 친환경 농업단지도 2006년 대비 7.8배인 4천100ha로 확대했다.

특히 사료값 급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체 사료인 청보리 재배면적을 2006년 128ha에서 2008년 740ha로 3년만에 5.5배나 늘렸다. 청보리 재배 농가들의 소득만 연간 23억원에 달하고, 사료비 절감 효과도 연간 50억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월출산 용지골 자락에 기(氣)를 주제로 한 전국 최대 규모인 ‘기(氣)찬 랜드’를 조성하는 등 관광시설 개발에도 한창이다.

군은 현재 인근 가야금 테마공원과 기(氣)건강센터, 기(氣)웰빙도로를 용지골과 연계하고 12ha의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등 휴식과 피서, 명상과 치료를 겸한 웰빙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대불산단 100% 분양 마쳐 청보리 재배 연 23억 소득 월출산에 ‘기찬 랜드’ 조성

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왕인문화축제는 올해에만 95만명이 방문해 10억여원의 주민 직접 소득을 올릴 정도로 대박을 터트렸다.

기업유치와 각종 대규모 국책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영암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2010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공사는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영암 경제의 중심축인 대불산단의 분양률도 민선 4기에 들어서 크게 향상됐다.

지난 2006년 66%에 불과하던 대불산단 분양률은 2007년 100% 분양이 완료됐으며, 현재 325개 업체에서 1만여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그동안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469억원을 투입, 산단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이같은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영암군은 지난해에만 50개에 이르는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41억원의 상(賞)사업비를 댔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기업유치와 각종 관광사업, 그리고 농축산의 육성 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잘사는 영암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투명·공정한 절차 거쳐 의장단 선출하라”

### 나주지역 시민단체 ‘시의회 파행’ 관련 성명

나주지역 시민단체가 후반기 나주시의회 의장단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감투싸움으로 의사 일정을 연기하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은 망각한 채 줄서기와 의원 간 자리 나눠 먹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의장단 선출은 출마와 정견발표 등 공정한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의회는 2006년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싸붙이 했으며 후반기에도 무소속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일당 독식을 추진하

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민주당 8명,무소속 6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면 동수로 전체 득표율도 엇비슷하다.

나주시의회는 당초 25일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재도전에 나선 나익수 현 의장과 강인규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다음달 2일로 연기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농협 나주시지부, 3개 중학교에 도서 기증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지부장 나승운)가 지난달 27일 관내 노안·공산·봉황중 등 3개 중학교에 교양도서 120여권을 기증했다.<사진>

나승운 지부장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 학교에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지부는 관내 농촌출신 대학생 14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맛과 멋이 살아있는

## 청정골 화순읍에서 '이침이슬' 택지 잔여세대 특별분양!

분양가격의 50% 대출 가능  
공주 - 화순간 8차선도로 2008년 착공  
화순전대병원, 마트, 학교, 은행 등 화순읍 3분거리  
잔세대 남향 고층 4m거리를 풍양호수경관 확보  
잔입료 상·하수도, 전기, 인터넷케이블 기본시설 완료  
토지분양면적 : 231~660㎡(70~200)선택 가능

주요사항

### 택지분양

유연한 구조에 생활자택-분리주택 형태로 주거환경은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문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화순의 행복도시로 여망들을 소환합니다.